



‘아빨싸, 가 버렸구나!’  
역장이 무너져 내렸다.  
순간 아이와 아직 인생 길이  
구만리 같은 아들의 장래가 압  
담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빛은 아  
무 것도 아니었다. 돈이란 언  
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는 일  
이 아닌가. 그녀의 일이 잘 되  
든가, 아들의 일이 잘 풀리면  
금방 갚게 될 지 누가 아는가.

그런데 이제 아들과 손주님  
의 장래를 어떻게 한단 말인  
가. 또 그녀가 앞으로의 일들  
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니 아찔했다. 며느리에  
게 쏟아졌던 짜증이 후회스러  
웠다. 좀 더 넓고 깊이 생각했  
어야 했다.

“승지야! 아범아!”

안 여사는 손을 내밀어 흔들  
어대며 소리쳤다. 그러나 찰흙

에 박힌 발은 떨어지지 않고,  
조금 전까지 보이던 아들과 손  
주도 그녀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아범아! 승지야! 여기 할미  
가 왔어. 어서 서울로 돌아가  
자!”

그러나 웬일인지 목소리가  
목 안에서만 감돌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아범아! 승지야!”

안 여사는 꼭 잠겨 나오지  
않는 목을 티우려고 안간 힘을  
쓰며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제  
풀에 잠이 깬다. 꿈이었다.

꿈속에서 진흙에 빠져 있던  
오른 쪽 발이 저려왔다. 의자  
다리에 발이 끼어 있었다.

그녀는 후우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잔 것인지  
그래도 멍하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진 듯했다.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  
렸다. 출판사였다. 다행히도  
일거리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래, 운명은 한 쪽 문을  
닫으면 다른 한 쪽의 문은 꼭  
열어주는 거야.’

그녀는 일을 시작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돌아왔  
다.

“시골 갔다가 장마로 길이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  
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에미야, 인간의 참된 영광  
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  
아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다.”

그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  
을 잡고 등을 토닥거리 주었  
다. **72**

### 해의의학적정보

#### 감자 먹으면 간염(肝炎) 예방

식용식물을 이용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식물백신’의 활용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실험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었으며 인체 임상을 통해서도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일부러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이 평상시처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질병이 예방되는 만큼 경제성이나 편리성에서 기존 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대의 다케시 아라카와 박사와

윌리엄 랑그리지 박사는 최근 식물백신과 관련된 2건의 성공적인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식물로 감자와 담배를 선택, 유전자 조합 기술로 가공함으로써 체내에서 질병예방에 필요한 항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과 대장균이나 콜레라균의 5각형 항원이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백신. 이들 항원은 동물실험에서 이미 질병의 예방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같은 기술을 이용한 인체실험으로는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

라는 충치원인균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인체내에서 항원을 만들 수 있도록 조작된 식물을 섭취한 후 뮤탄스균을 구강내 접종한 결과 적어도 4개월 이상 충치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식물을 섭취한 후 생성된 항체의 직접 항원을 접종한 후 만들어진 항체의 충치예방 효과 비교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구강내 뮤탄스균을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나타나기까지의 시간도 대조군이 58일 걸리는데 비해 식물백신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118일 후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덧

붙였다.

대장균이 분비하는 독소 LT-B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작된 감자를 이용한 인체실험도 실시됐다. 이 실험에서도 역시 감자를 섭취한 후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분한 항체가 생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조합술로 제조한 감자를 섭취할 경우 문제가 없었으나 극히 일부만이 오심 등 소화기장애를 호소했다. 연구팀은 또 감자를 물렁해질때까지 요리한 후 섭취할 경우 항체 생성이 50%까지 감소돼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약사공론〉 **72**